유적지 순례 85

가일입향조 항과 화산공 주

佳日入鄕祖 恒 花山公 柱

△가일마을 세거지(경북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입향조 참의공 항 묘소(풍천면 가곡리 지곡 남향산)

△19세 종묘서령 이 묘소(풍천면 가곡리 선원 동록)

△권이의 묘지석

△19세 권건의 묘소(풍천면 가곡리 지곡 서록)

△참의공 항과 화산공 주의 문과급제 교지(보물 1002호)

△화산공 동방록(보물 제1002호)성종12년 화산공이 성균관에서 함께 수학하던 최부 등 10여인의 시를 모아 엮은 첩으로 권주가 서문을 썼다.

풍천 가곡에 들어서니 정산(鼎山)이 포근하게 감싸고 그 아래 한옥들이 즐비한데 유적들의 표지가 정연하고 동쪽은 가일(佳日) 서쪽은 노동(魯東)골이며 앞에 지곡 연못이 자리하고 있어 형국은 마치 두 마리 용(龍)이 새끼를 보듬고 있는 형상이라 한다. 가일마을 안동권씨 입향조는 세종조 정랑을 지낸 권항(權恒)이 풍산류씨에 장가들면서 이니 600년의 세월이 흘러 유적은 한옥 10동 문화재가 고색창연(古色蒼然)하다.

18세 참의공(參議公) 항(恒)

공의 증조(曾祖)는 복야공파(僕射公派) 15세(世) 기파조(岐派祖) 서주공(瑞州公) 시중(時中)이고 조부(祖父)는 고려조 선공감(繕工監)에 보임한 의(義)이며 선고(先考)는 강릉판관, 연풍현감을 지내고 통례원(通禮院) 좌통례(左通禮)로 추증된 심(深)이다. 공은 태종 3년 평해에서 출생하여 세종 5년 사마시에 입격하고 세종 23년 식년시 문과급제하여 세종 27년 성균관 주부 이듬해 사헌부 감찰이 되어 서장관(書狀官)으로 명(明)나라에 다녀온 후 거창현감으로 나갔다. 단종 1년 교서관 교리, 공조정랑이 되었으며 세조 1년 호조로 옮겨 좌익원종공신에 녹훈되었다. 이어 세조 2년 영천군수(현 영주)로 나가 세조 7년 임소에서 졸하니 풍산의 지곡(枝谷) 남향산에 안장하였으며 부제학 유양춘이 비문을 지었고 이조참의에 추증되었다. 공은 2남 3녀를 두었는데 장남은 이(邇)이고 차남은 건(建)이다.

19세 통훈대부 종묘서령 이(邇)

공은 진사로 현령을 지냈는데 온화하고 소탈하며 청렴하고 어질고 이해하는 자세로 백성을 대하였다. 가정에는 효성이 지극하고 우애가 깊었다. 세종 14년 실록에 진잠현감을 지낸지 5년째 생질 병조참판 김여식이 본도의 관찰사로 부임하게 되자 곡성현감으로 이적하게 되었다. 공이 떠날 때 진잠의 백성들이 길을 막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 공께서 30년간 진잠의 사도가 되어 백성을 살펴주기 바랐는데 이제 떠나가시니 우리들은 어떻게 살라 하십니까?" 하였다. 성종 21년 55세에 졸하니 묘소는 풍천면 가곡리 선원 동록에 있다. 병조판서 김종직이 공의 지문을 짓고 대제학 홍귀달이 비문을 지었다. 공은 화산공(花山公) 주(柱)를 두었는데 아들 주가 귀히 되어 이조참판에 추증되었다.

19세 차자 건(建)

공은 풍천면 가곡리 지곡동에서 출생하였고 호가 지산(芝山)이다. 어려서부터 영특하여 신채수철(神彩秀徹)하였고 학재가 천경지의(天經地義)에 통달하였다. 성종 8년 친시문과 장원급제(壯元及第)하니 '왕이 출어하여 백관의 진하(陳賀)를 받고 공을 불러 신래진퇴(新來進退)의 의(儀)와 정희(呈戲)를 베풀게 하고 내구마(內廐馬)를 하사하니 공이 지나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고 실록과 양지성의 송사(頌辭)에 있다. 초임에 사헌부 감찰을 배하고 이조좌랑이 되었다. 성종 14년 병조좌랑으로 왕의 행차에 태경전 승화문을 열어 놓지 않아 파직되었다가 15년 고신이 환급되어 춘추관 기주관, 병조정랑으로 승차되었으나 오래지 않아 낙향하여 영재들을 육성하고 교목세가(喬木世家)의 터전을 잡았다. 성종 17년 졸하니 묘소는 풍천면 가곡리 지곡 선산에 있다. 아들 위(偉)는 충좌원종공신이고 8대손에 진사 덕용(德龍)이 있다.

20세 화산공(花山公) 주(柱)

공은 종묘서령 이(邇)의 아들로 세조 3년 풍천 가곡리에서 출생하여 총명하고 영오하며 10세에 경서(經書)와 사기(史記)에 박통하였고 13세에는 글귀가 사람을 놀라게 하였으며 날마다 문장과 글씨가 정묘해졌다. 경상감사 김종순이 초도순시에 백일장에 장원하였기에 재명이 알려졌다. 성종 5년 18세에 사마시를 하여 진사가 되어 성균관에 들어갔다. 호는 화산(花山)이고 남효온(南孝溫) 등과 더불어 주문공의 옛일을 모방해서 향약(鄕約)을 짓고 조석으로 소학을 강론하였는데 그때 알선된 인물들이 모두 명사가 되었다. 또 연연 최부와 함께 동방록(同房錄)을 지었는데 사람들이 서로 전해 외우기에 이르렀다. 보물 제1002호로 지정되어 있다. 성종 12년 친시문과 갑과에 2인으로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르고 성종 20년 사헌부 지평이 되고 공조정랑시 한학이 능통하여 요동에 다녀왔다. 성종 24년 대마도 이권다툼이 있어 경차관으로 파견되어 도주(島主)들을 효유하고 돌아왔다. 연산 1년 성종시책을 지었는데 그 초본이 보물 제549호로 지정되어 있다.

연산군 3년 도승지가 되고 곧 가선대부 충청도 병마절도사로 나갔으며 대사헌(大司憲)과 예조참판(禮曹參判)을 지냈다. 연산군 8년 정조사(正朝使)가 되어 연경(燕京)에 다녀왔다. 연산군 9년 경상도관찰사로 나갔으나 연산군 10년 갑자사화(甲子士禍)가 일어나니 성종10년에 연산 생모 폐출, 사약을 가지고 갔다하여 왕이 권주를 사사하라 하는데 정승이 권주는 주서로 승지가 시키는 대로 한 것이니 죄가 다르다 하므로 장(杖) 70대를 치고 귀양 보냈으나 뒤에 공의 일가 모두 가산이 적몰되고 경북 평해로 유배되었다. 연산 11년 죄가 추가되어 영의정 유순(柳洵)이 죄가 교형(絞刑)에 해당된다고 하자 왕은 '주는 내가 부릴 수 없고 주도 나를 섬길 수 없으니 조율에 따라 시행하고 그 자식은 해외로 위리안치(圍籬安置)하라' 하였다. 이로서 공은 교살형을 받으니 수 49세였다. 중종반정으로 공은 신원(伸寃)되어 자헌대부 우참찬(右參贊)으로 추증되었다.

유고로 화산일고를 남겼으며 연려실기술과 고산집(孤山集)에 사적이 있다.

묘소는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선원 중록에 있고 갈암 이현일(李玄逸)이 신도비문을 짓고 퇴계 이황(李滉)의 제묘도시(題墓道詩)가 영가지에 있고 신도비는 경북 문화재 제65호로 지정되었으며 작시(作詩) 충정허국(忠貞許國) 횡이기화(橫罹奇禍)운은 연산의 영에 따라 지으니 원본이 보물 제549호로 지정되어 있다. 공은 천자가 수미하고 행의가 수결하여 곧은 절개와 청렴함은 명망이 있고 문장에 능하고 초서와 예서를 잘 썼다.

비문에 명하노니 "선비가 항상 위(位)를 얻지 못하여 그 재능을 펴지 못함을 한스럽게 여기고 또 항상 몸을 닦지 못하여 죽어서 이름을 남기지 못함을 한스럽게 여기나 오직 선생은 출신하던 초년에 거의 뜻을 얻어서 이름이 돋났으나 아! 만년에는 절의로 인해 시대의 불길함을 만났구나 인(仁)하고 재앙을 만났으며 정도(正道)를 행하고 화난을 당하는 일은 예부터 많았으니 선생을 또 어찌 한탄 하오리까"(가선대부 이조판서 겸 성균관좨주 세자시강원찬선 이현일) 또 고산 이유장이 공의 갈음명(碣陰銘)을 지었다. 이퇴계(李退溪)가 공의 묘를 제로 시를 지으니 "명신이 재앙을 입으니 어찌 하늘의 뜻이랴, 무성한 소나무 잣나무 푸른 기운에 싸여 있네, 절조 지킨 행실 다음 청사에 남을 것이니 천고의 문장 전할 길 없으니 한스럽구나" 이 시를 읽고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후사는 질(礩), 전(磌), 석(石爲), 굉(硡)과 2녀(女)를 두었다.

풍천면 가곡리에 경북 문화재자료 제35호 선원강당(仙源講堂)이 있으니 화산공이 수학하던 자리를 기념하기 위하여 후손들이 지은 집이며 현종 9년 중건하였다. 선생의 신도비와 비각은 집 오른쪽에 있고 묘소는 뒷편에 있다. 화산공 신도비는 숙종 37년 건축하였으며 좌대위에 비신과 용머리를 갖추었으며 숙종 때 이조참판을 지낸 남인 갈암(葛菴) 이현일(李玄逸)이 짓고 이유가 썼다. 비각은 1981년 세웠다.

21세 사락정(四樂亭) 봉사공 질(礩)

성종 14년 출생하여 호를 사락(四樂)이라 하였는데 이황이 정자이름을 지었다. 갑자사화에 언문옥사건이 일어나니 연산군은 화산군의 자제가 한 일이라고 의심하고 공을 체포하여 신문하고 거제도로 귀양보냈다. 중종반정 후 풀려나 현릉 참봉에 제수되고 중종 12년 광흥창봉사가 되었는데 중종 16년 신사(辛巳)무옥에 연좌되어 예안으로 유배되었다. 중종 23년 복관되고 선조 2년 졸하니 묘소는 조고묘 아래에 있으며 이황이 묘갈명을 지었다. 공은 용모가 수려하고 아름다운 자질을 가지고 친,외가로부터 영향을 받아 고상한 품격이 보통사람보다 특출하였으며 담론을 잘하였으므로 듣는 이 권태를 잊으니 오래될수록 더욱 친하였다. 공은 악을 버리고 선을 따라 의를 취하는 뜻이 굳건하였으므로 누구도 그의 뜻을 따랐다. 공은 3녀를 두었으니 사위는 안희빈, 이황(李滉), 이학수이다.

수찬공 전(磌)

성종 17년 출생하여 중종 5년 식년시 생원으로 합격하였으며 포은 정몽주를 문묘에 배향토록 주청하여 실현시켰다. 중종 14년 조광조(趙光祖)의 건의로 시행된 현량과(賢良科)에서 급제하였다. 문과방목에는 성종 21년으로 나온다. 그러나 중종 16년 안처겸이 대신을 모해하였는데 공이 평소 처겸과 함께 하였기에 연루되어 파직 유배되었으며 신사무옥의 핵심으로 지목되어 사사되니 수 36세였다. 영조 22년 신원되어 홍문관 부제학(副提學)으로 추증되고 연려실기술에 사적이 실려 있다. 묘소는 충북 충주시 북촌 마흘산 회수동에 초배 광주이씨와 합폄이다. 광주이씨의 묘갈명은 성균생원 이연경(李延慶)이 지었는데 이씨는 효성을 다해 시모를 모시고 일찍이 소학서를 배워 부녀자의 모범이 될 것을 읽고 조선(祖先)의 신위에 분향하고 제수를 몸소 장만하였다고 하였다.

참봉공 굉(硡)

성종 25년에 출생하여 음보로 참봉에 제수되어 진주목사에 이르렀다. 명종 18년 70세로 졸하니 묘소는 선고묘 서록에 있다. 아들은 넷을 두었는데 장자는 기남(奇男)으로 후사가 없고, 차자는 의남(義男)으로 벼슬은 사과(司果)이다. 의남의 아들은 직장인 호연(浩然)이고 호연의 아들은 사용(司勇) 경행(景行)이다.

참봉공의 현손 박(博)은 문과 급제하여 군수에 이르고 박의 아우 정(挺)의 아들 선(愃)이 또 문과급제하여 정평부사가 되었다.

25世 구봉공(九峯公) 박(博)

공은 참봉공 굉(硡)의 현손이며 선고는 경행(景行)이다. 선조 40년 출생하여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자상하며 효성이 깊었으니 17세에 모친이 위중하여 대변을 맛보아 병의 깊음을 징험하였다. 인조 8년 진사가 되었고 4년 후 명경과(明經科)에 급제하였으며 인조 11년 사헌부 감찰로 식년시 문과급제한 기록이 상대계첩(霜臺契帖보물1002호)에 나온다. 효종 7년 영남출신으로 벼슬하던 권박 등 관원 12명이 남산아래서 계회를 열면서 작성한 계첩인 종남동도회제명록(終南同道會題名錄보물1002호)이 있으며 모두 인터넷에 올라있다.

벼슬에 나아가 주서로 있을 때 경연(經筵)에서 대사간 서경우가 실언하고 나서 정원일기에 삭기를 요구하였는데 공이 바로 써넣으니 서가 원한을 품고 음해하여 귀양을 갔다가 풀려나 감찰이 되었다. 인조 24년 옹진현령으로 나갔는데 염전을 관리하는 관노가 횡포한다는 말을 듣고 감사에게 보고하고 죄를 다스리었는데 이 일로 파직당하여 집으로 돌아오는데 군민들이 전송하며 섭섭해 하였다. 효종 원년 강원도사로 부임 중 옹진의 일로 탄핵하는 자가 있어 충주로 귀양갔다. 배소에서 부친의 부음을 듣고 노숙하며 통곡하였는데 마침내 사면되어 빈소를 받들게 되었다. 3년상을 마치고 춘추관 기주관이 되어 조회에 참석하였는데 누가 이조정랑 서필원에게 인사하라 하였으나 공은 거부하였다. 효종 7년 고성군수로 나가 봉록(俸祿)을 덜어 백성을 도와주니 백성들이 유임을 청하였다. 공은 너그럽게 은혜를 베풀고 청렴하니 백성들이 잊을 수 없으므로 옹진과 고성백성들이 비석을 세워 공을 칭송하였다. 공은 귀향하여 현종 2년 병으로 졸하니 향년 55세였다. 초배위에서 아들 일인을 두었으니 징(懲)이고 계배에서 회(恢), 협(協)이다. 협(協)이 이현일에게 와 비문을 청하니 "명하노라 자질은 온순 화평하며 장엄하고 일에 완급이 있도다. 가정에서는 효우하고 벼슬에 나가서는 청렴하며 공명에 뜻을 두지 않고 본분을 지키니 누가 감히 허물하랴"

26세 정곡공(井谷公) 징(懲)

정곡공은 구봉공(九峯公) 박(博)의 장자로 총명 영오하여 글짓기를 잘하였다. 범속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았고 정문(程文)공부를 하여 초시에 합격하였다. 공은 오래 사귄 친구라도 귀(貴)에 오르면 멀리하고 서책을 즐기니 집이 매우 가난하여 미음으로 지내도 태연하였으며 의복은 보철(補綴)하여서도 완벽을 갖추었다. 고산 이유장이 빙옥(氷玉)같은 정조라고 자주 칭찬하였다.

정축년 역질에 감염되어 63세에 졸하니 정산 남쪽에 안장하였다. 배위는 유성용의 증손녀이다. 아들은 병곡공(屛谷公) 구(渠)이다.

26세 용곡공(龍谷公) 선(愃)

공은 24세 경행(景行)의 차자 정(挺)의 아들로 인조 17년 오룡골에서 태어나영오함이 남보다 뛰어났다. 호는 용곡(龍谷)이며 현종 4년 사마시에 합격하여 현종 10년 문과급제하여 승문원에서부터 병조정랑, 숙종 원년 문경군수로 보임되었다가 정평부사로 나가 정사에 청렴하였다. 숙종 6년 출척(黜陟)의 변이 있어 김만중이 파직을 청했으나 왕은 듣지 안했다. 과만(瓜滿)이 되어 퇴직하고 낙향하여 부모를 봉양하다가 먼저 세상을 떠나니 44세였다. 용궁 구봉공 계하에 장사하였다. 후사가 없어 백형 염의 아들 익을 계자로 삼았다.

사직공 종(悰)과의 형제 위차가 신사보(辛巳譜 1701년)와 갑인보(甲寅譜 1734년)에는 悰이 선재(先載)이고 후갑인보(後甲寅譜 1794년)와 정미보(丁未譜), 신축보(辛丑譜 1961년)에는 항(恒)이 선재(先載)이며 갑신보(甲申譜) 에는 (悰)이 선재(先載)이고 선고(先考) 심(深)의 처(妻) 손씨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하고 각자 수결한 분재기(한국국학진흥원 발행 2009.11.3 보물549호)에는 장자 권항(權恒) 통훈대부 지영천군사 몫(衿), 딸 녹사 배효장 몫, 아들 권종(權悰) 몫(衿), 딸 전예안현감 권경행의 아내 몫, 가옹의 첩 자손들 몫 장손자 도사 권이의 몫으로 나타나있다.

(감수 가일문중 권대직054-858-1334, 기사·사진 현봉 권경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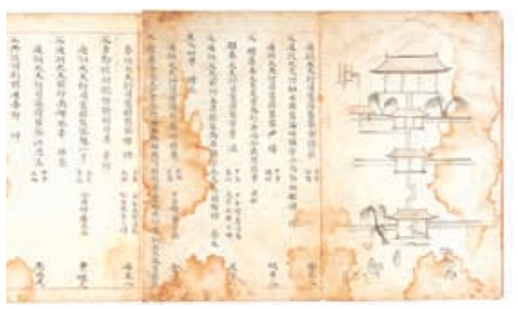
△연산군 교서(보물 제1002호)충청도 관찰사로 임명하고 백성을 잘 다스리라는 내용이며, 연산군 유서(諭書)는 경상도관찰사 재직시 밀부 제7부(密符第七符)를 내리는 특권을 부여하였다.

△화산군 권주 신도비(경북 문화재 제156호)

△선원강당(풍천면 가곡리 노동골 서쪽, 경북 문화재라료 제 35호)

△화산군 주의 묘소(노동골 서쪽 선원강당 후록)

△봉사공 광흥창 질 묘소(가곡리 노동골 서쪽 선고 계하)


△상대계첩(霜臺契帖 사헌부 청사이며 인조11년 문과한 25세 권박의 이름이 적혀있다. 보물 1002호 조선중기 계회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종남동도회제명록(終南同道會題名錄보물1002호) 권박 등 12명이 계회를 열면서 작성한 계첩으로 김응조(金應祖)가 작성하였다.

△권심의 처 손씨의 재산 분재기(보물 제549호 국학진흥원 소장) 4남매에게 비슷한 수의 노비를 상속하여 조선 전기에 남녀균분상속이 보인다.